

# 세 기 의 건 축 가

## 월터 그로피우스의 遺書

姜 明 求

20세기의 위대한 건축가이자 건축교육자 이었던 고 월터 그로피우스는 급년 7월 5일 미국 마사추셀주 보스톤시에서 그의 86세의 화려한 생애를 마쳤으나 그 이틀후인 7월 7일 그가 하버드대학 건축과 주임교수 시절에 그 젊은 제자들과 같이 조직해 놓은 T.A.C<건축가협동집단> 사무소의 회의실에서는 그로피우스의 사랑하는 미망인인 「이-제」 부인과 영애 「아티」 양을 비롯하여 그의 舊友들과 협력자등 100여명이 모여 삼펜주를 더뜨리며 축배를 들고 그의 유서를 공개하고 낭독하는 모임을 갖었다. 이하는 T.A.C에서 보내온 그로피우스의 유언이며 소개하는 기쁨을 같이 나누기로 한다.

### 遺 言

내가 죽거든 나를 火葬에 부쳐다오 그리고 그 亡骸를 방문 해 줄 필요는 없다. 죽은자를 찾는 일이나 숭배한다는 등의 일은 참으로 무익한 일이다. 나의 죽음에서 모두 일어 나시오! 슬픔의 표시도 조금도 필요 없는 일이다.

구금을 통하여 사귀어 온 나의 모든 친구들이 「바우·하우스」를 위하여 때때로 모임을 갖고 서로 즐거운 술잔을 나누며 웃고 서로가 화목하다면 그 얼마나 훌륭한 일이 아닐까? 그러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과 내가 가깝게 一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모임은 墓地에서 베풀어지는 기도회 보다 훨씬 알차고 영글음(實)이 많은 모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이란 모든것의 액스이다

이-제(未亡人—譯者註)여! 가장 사랑하는 이-제여! 바라건대 나의 遺志를 그대로 재산으로 이어 받아 그대 마음 내키는 바에 의하여 밀고 나아가 주기 바라오.



월터 그로피우스와 그가 보내온 유서

譯者註：近年에 와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여러분이 이세상을 떠났다 후랑크·로이드·라이트·르·콜리제, 미-스반·델·로에등...

그러나 그로피우스처럼 遺書를 남기고 즐거이 이세상을 떠난분은 아마 다른 예술계 문화계 학술계 정치계를 막론하고 듣지 못하던 일로 안다.

참으로 같은 건축가로서 자랑스럽고 마음 든든하고 흐뭇한 일이 아닐수 없다.

특히 그로피우스의 구우 또는 그를 존경하던 그의 제자 T.A.C의 협동자들이 그가 사랑하던 유족과 같이 모여 그의 뜻을 전세계 건축가에게 까지 보내온 일은 참으로 感銘깊은 일이다.

그로피우스야 말로 건축가로서의 훌륭한 인격과 올바른 건축가의 자세를 확립하면서 영원히 꺼지지 않을 햇불을 밝게 비치며 지금도 또 앞으로 우리들의 앞길을 밝게하며 같이 살고있는 위대한 건축가의 선배로서 여러분과 같이 다시 한번 고인에게 감사하며 그의 명복을 빌어마지 않는다.